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시, 유치전 뛰어 들었다

中·日도 유치 신청...치열한 3파전 예고
강시장 모스크바 FINA 회의서 득표활동

광주가 일본, 중국과 함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7일(이하 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수영연맹이 오는 2019년에 열릴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도쿄 개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유치 희망도시는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광주가 지난 19일 FINA에 유치 의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강은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런던올림픽 현장에서 FINA집행

위원들과 만나는 등 을 초부터 FINA 측과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강 시장은 2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FINA 주최로 진행되는 '월드 아쿠아티크 컨벤션'에도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 VIP 대상 연설과 세미나 기조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다음달에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회가 유치되면 전세계 200여 국가의 수영 관계자 2만여명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20~30여만명의 미디어와 관광객 등이 광주를 방문,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만4000여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김윤석 사무총장은 "세계수영대회 유치는 스포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치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대회 유치 희망 도시는 내년 4월4일까지 FINA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개최 도시는 내년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FIN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9년 대회는 7~8월 중 총 31일 동안 열리며 세계 국가대표 챔피언십(16일간)과 세계 수영 동호인 마스터스 대회(15일간)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헬륨 가스 공급 부위 파손으로 발사 연기된 나로호가 지난 26일 발사대에서 분리돼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나로호 내달 중순이후 재발사

원인파악 난항... 오늘 발사관리위원회의
파손된 고무링 러시아 보내 정밀분석

고무부품 파손으로 연기된 나로호 3차 발사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2차 발사 연기 때는 원인이 빨리 밝혀져 다음날 바로 재발사됐지만, 이번 3차 발사는 발사체를 발사대에서 분리한 뒤 조립동으로 옮겨 점검하고 있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2·3면>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일각에서 이번 3차 발사가 마지막 기회이고, 문제가 발견된 만큼 충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치의 뿌리, 자부심의 이름이 되도록 민주통합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사관리위원회 회의가 29

일 열릴 예정이라던 사실상 이번 발사에비밀에 나로호를 발사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셈이다.
파손 부위를 긴급 수리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예정일 최종 기한인 오는 31일 발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뒤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노경원 전략기술 개발관은 "현재 한·러 연구진이 이상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빨리 발사시키는 것 보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28일 "나로호 3차 발사 일정 논의를 위한 발사관리위원회 회의를 29일 연다"고 밝혔다. 예초 나로호 발사에비밀은 이달 26~31일까지다. 마지막날인 31일 나로호를 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 28일 발사일정을 정하고, 29일부터는 발사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항우연과 러시아 기술진들은 나로호 발사체 하부 연료공급라인 연결포트(CD-2)내 엔지니어용 헬륨 공급부 실(seal)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3차 발사를 중지했다.
발사 연기의 원인 분석도 늦어지고 있다. 나로호 조광래 발사추진단장은 지난 26일 "발사체 내부 헬륨 탱크로 헬륨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부 압력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사 연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발사 연기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기술진들은 나로호 발사체 하부 연료공급라인 연결포트(CD-2)내 엔지니어

용 헬륨 공급부 실 파손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했다.
반면, 연결 포트 사이에 틈새 발생에 대해 실 파손이 원인인지, 틈새가 먼저 발생해 실이 파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러시아 측에서 "파손된 실을 모스크바로 보내 추가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항우연 측이 동의했다. 결국 추가 분석으로 발사 일정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충남대 항공우주공학 허한일 교수는 "외부 주입구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고치기가 쉬운데, 로켓 안에서 압력을 받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사체를 분해해서 처음부터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교할수록 << 토요타 >>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371.8383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의원·단체장 공천권 돌려드리겠다

문재인 정치쇄신 '광주선언' 발표... "단일화 위해 모든 기득권 버릴 것"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정치권의 기득권 해체와 민주당의 쇄신,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긴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후보단일화 정국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문 후보는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구조 해체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와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도, 민주통합당의 미래도 없다"며 "변화만이 정치와 민주통합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등

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대통령 인사권 개혁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임제도 폐지 등과 함께 ▲대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기능 개혁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민주당의 체질 개선 방안으로 ▲정책당원제 전면 도입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네트워크 정당 건설 등을 내놓았다.
특히, 문 후보는 호남의 민주당 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안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구조를 공고하게 쌓아와 '리모컨 자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주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는 이어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차세대 정치의 주역을 양성하겠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항상 공개해 지역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나아가 "호남이 더 이상 차별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호남의 역사적 헌신과 희생이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치의 뿌리, 자부심의 이름이 되도록 민주통합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雪花秀
Sulwhasoo
INNERSENSE
COMPLETE SERUM
여민에센스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호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민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여민에센스

Sulwhasoo

· 유엔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